

高麗時代の 圖書館 研究

- 寶文閣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brary in the Goryeo Dynasty

- With priority given to Bomungak -

金 東 煥(Kim, Dong-Hwan)*

◁ 목 차 ▷

1. 緒 言	5.1 機能과 변천
2. 高麗 초기 宋과의 文物 交流	5.2 職制
3. 肅宗睿宗년간의 文興 施策	6. 結 言
4. 淸讌閣과 寶文閣 設立의 經緯	<참고문헌>
5. 寶文閣의 機能과 職制	

< 초 록 >

본고에서는 고려시대의 도서관을 보문각을 중심으로 설립시기와 존속기간 및 직제,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여 고려시대 도서관사에 있어서 보문각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보문각은 고려 예종 11년(1116) 11월에 설립되어 조선 세조 6년(1460)까지 344년간 존속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도서관적 기능을 가진 기관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기관인 것이다. 보문각의 기능은 국가의 중요한 전적을 보존하고 관리한 국가 중앙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가적으로는 전적의 교감과 경전의 강론 및 왕세자와 국왕의 교육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보문각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종합학술센터로 평가된다.

要語 : 고려, 도서관사, 보문각

* 中部大學校 人文社會大學 文獻情報學科 副教授(dhkim@joongb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29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Bomungak's status in Goryeo Dynasty's library history by investigating the year of establishment, period of existenc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Bomungak. Bomungak was first established at 11th year of Yejong(1116) in Goryeo Dynasty. Also it had been existed for 344 years till 6th year of Sejo(1460) in Joseon Dynasty. This is the longest history of existence among the many institutes of Goryeo Dynasty which had a function of library. Bomungak's main function was to preserve the historical and classical books and documents. More over, it was used as educational institute for king and prince. By these results, Bomungak is evaluated as representative total academic institute in Goryeo Dynasty.

Key words : Goryeo Dynasty, history of library, Bomungak



1. 緒 言

문헌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한 소산물이요 이러한 문헌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도서관은 가히 인류문화의 寶庫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당시의 문화적 현상과 학술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중국과의 교류 등으로 수집된 많은 전적을 국가의 장서로 축적해 나갔고, 각 歷朝에서는 秘書省을 비롯한 修書院, 秘書閣, 文德殿, 重光殿, 長齡殿, 延英殿, 淸讌閣, 寶文閣, 天章閣 등의 기관을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이들 전적을 보존·관리했다. 도서관적 기능을 담당했던 이들 제 殿閣들 중에서 특히 淸讌閣과 寶文閣은 고려시대의 도서관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麗代 전반의 圖書館史를 위시한 淸연·보문각에 대한 연구¹⁾는 그리 활발하지가 않다. 필자가 과거 석사학위논문에서 보문각의 설립과 변천에 관해 일부 다루었지만 文이 疏略하고 또한 오류가 적지 않음을 밝힌다. 차제에 자료를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해 재차 정리해 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먼저 중국과의 문물교류 현상과 송대 제 전각의 설립과 직제 등을 살펴 이들이 고려전기 문화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보고, 肅宗·睿宗년간의 文教興隆 施策을 고찰하여 淸연각과 보문각 탄생의 기반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문각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淸연각과의 관계를 관련 있는 사료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論考의 착오를 수정할 것이다. 기능과 직제의 변천은 시대의 흐름과 병행하여 고찰함으로써 고려시대 도서관관적인 기능을 수행한 여타의 기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究明하고, 또한

1)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李炫熙, 「高麗時代 圖書館 研究」1~14.(圖書館, 1970~1972)

周藤吉之, 高麗前期의 寶文閣.(朝鮮學報, v. 90, 昭和54(1979))

金東煥, 「寶文閣의 變遷과 寶文閣冊目錄」(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85).

朴文烈, 「高麗時代 書籍政策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2).

보문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시기문제도 분명히 하여 그 존속기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도서관사 특히 고려시대 도서관사에 있어서 보문각이 차지하는 位置를 재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2. 高麗 초기 宋과의 文物 交流

고려와 宋과의 國交는 光宗 13년(962)에 廣評侍郎 李興祐 등을 송에 파견하여 方物을 전하면서부터 열리기 시작하였다.²⁾ 이후 麗·宋 양국의 교류는 매우 빈번하여 대개 고려의 왕이 송으로부터 冊封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貢納과 賜與의 명분으로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력이 강성해진 契丹과 女眞으로 인해 麗·宋·遼 및 女眞과의 정치, 외교적인 사정은 실로 복잡 다단하였다. 成宗 12년(993)에 契丹將 蕭遜寧의 침입은 대규모 거란군 침공의 첫 번째의 일이다. 당시 거란병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할 때 徐熙의 지략에 의해 화약을 맺은 일³⁾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顯宗년간에 두 차례에 걸친 거란군의 재침공으로 수도인 開京이 분탕질을 당하는 시련을 겪었고,⁴⁾ 결국 姜邯贊에 의해 거란군 십만을 격파시키는 大捷을 거둔⁵⁾ 뒤 요와의 군사적 대치관계는 진정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처럼 요와 和戰을 거듭하는 사이에 오래 전부터 중국과 친교했던 고려는 한때 외교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顯宗연간에는 당시 외교에 있어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年號의 사용을 송과 요의 것을 번갈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의 어려운 사정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거란의 침공시에

2) 『高麗史』. 世家, 卷 2 光宗 13年條. “冬, 遣廣評侍郎李興祐等, 如宋獻方物”

3) 『高麗史』. 世家, 卷 3 成宗 12年 閏10月 丁亥條. “閏月丁亥,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蕭遜寧, 攻破蓬山郡, 不得進乃還, 遣徐熙請和, 遜寧罷兵”

4) 『高麗史』. 世家, 卷 4 顯宗 1年 12月 辛卯~癸丑條. “辛卯 契丹主 自將步騎四十萬·己亥, 康兆與契丹, 戰于通州, 敗績就擒·癸丑, 丹兵至西京, 焚中興寺塔”

5) 『高麗史』. 世家, 卷 4 顯宗 9年 12月 戊戌條. “契丹蕭遜寧, 以兵十萬來侵. 王以平章事姜邯贊, 爲上元帥, 大將軍姜民瞻, 副之帥, 兵至興化鎮, 大敗之, 遜寧引兵·”

고려의 조정은 송에 使臣을 보내 援兵을 요청한 일이 있었고,⁶⁾ 文弱에 빠진 송 또한 거란군의 징벌을 위해 고려에 군사를 요청하는⁷⁾ 등 麗·宋 양국은 끈끈하게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고려와 송간의 교류는 요와의 관계가 복잡하던 현종시대에도 면면히 이어져왔거니와 文宗 말기에 이르러서는 자못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거란의 세력이 약화되어 麗·宋간의 교통에 장애가 줄어들던 요인도 있었지만 송의 선진문물을 수입하려는 고려의 의도와 고려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요를 牽制하려는 송의 외교책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文宗 13년(1059) 8월에 왕은 송과의 교류를 위해 耽羅와 靈巖의 목재를 베어 大船을 만들려고 했다⁸⁾는 기록이 보인다. 문종의 大船 건조 계획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당시 陸路로는 감당하기 곤란한 상당량의 交易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동왕 22년(1068)에 宋帝(神宗)는 고려와 국교를 맺어 거란을 도모하려는 생각에 먼저 상인 黃愼을 파견하자 문종은 그를 응송하게 대접하여 보냈다.⁹⁾ 동왕 24년(1070)에는 黃愼이 고려 정부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다시 입국하자 고려에서는 정식으로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그에게 알려 보냈고, 동왕 26년(1072) 봄에 民官侍郎 金梯를 송에 보내 국교를 닦았다.

양국 간의 교류는 사신의 왕래로 이루어지는 交易이 필연적으로 따랐으니 고려가 송에 바치는 貢物과 宋帝가 하사하는 賜與品の 형태로 양국 조정간에 일종의 公貿易이 성행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교통과 통신사정을 감안할 때 사신의 왕래로 이루어진 공무역은 양국 교역의 가장 큰 교량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교역의 품목은 의복과 비단, 器物, 장식류, 말, 藥材, 書畫類를 비롯하여 書籍 등 매우

6) 『高麗史』. 世家, 卷 4 顯宗 6年 11月 甲戌條. “遣民官侍郎郭元如宋, 獻方物, 仍告契丹連歲來侵, 表曰借以聖威, 示睿略, 或至傾危之際, 預垂求急之恩.”

7) 『高麗史』. 世家, 卷 3 成宗 4年 5月條. “宋將伐契丹, … 宋因誣高麗, 與契丹, 依爲勢援, 擄掠生口, 韓遜齡之如宋也.”

8) 『高麗史』. 世家, 卷 8 文宗 12年 8月 乙巳條. “王欲於耽羅及靈巖, 伐林造大船, 將通於宋.”

9) 『高麗史』. 世家, 卷 8 文宗 22年 7月 辛巳條. “宋人黃愼來見言, 皇帝召江淮兩浙荆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羅拯曰 高麗古稱君子之國, 自祖宗之世, 輸款甚勤, 暨後阻絕, 久矣. 今聞其國主賢王也, 可遣人諭之, 於是, 拯奏遣愼等, 來傳天子之意, 王悅, 館待優厚.”

다양하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 된 이후인 文宗 32년(1078)과 34년(1080)에 고려의 공물과 송제 사여품의 품목과 수량이 「高麗史」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¹⁰⁾ 당시의 교역량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으로 중국의 많은 典籍이 고려로 유입되어 우리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文宗시대 전후 서적의 유입사정을 史料의 기록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成宗 10년(991)에 송에서 돌아온 韓彥恭이 송제가 하사한 「大藏經」을 왕에게 바쳤다¹¹⁾는 기사가 보인다. 顯宗 18년(1027)에는 송 江南人 李文通이 약 6백여 권에 이르는 서책을 가지고 와 獻納한 사실이 있었고,¹²⁾ 靖宗 11년(1045)에는 송에서 사한 「禮記正義」, 「毛詩正義」를 각 40질씩을 刊印하여 御書閣에 1부를 소장하고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준 바 있다.¹³⁾ 文宗 13년(1059)에는 역시 송에서 하사받은 「隋書」를 목판으로 다시 새겼으며,¹⁴⁾ 동왕 37년(1083)에는 송으로부터 「大藏經」이 來賜되어 開國寺에 봉안¹⁵⁾하게 되었다. 宣宗 3년(1086)에는 義天이 入宋하여 송으로부터 佛典 및 儒家의 經典 1천여권을 받아 왔으며,¹⁶⁾ 동왕 7년(1090)에 「文苑英華集」의 하사가 있었다¹⁷⁾는 기록도 나타난다. 또한 睿宗 9년(1114)에는 回信使 安稷崇 등이 송 徽宗이 사한 신악기와 譜訣 을 가지고 일도 있다.¹⁸⁾ 한편 宣宗 8년(1091)에 송 哲宗은 고려에 善本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麗人 李資義를 통해 그 求書目

10) 「高麗史」. 世家, 卷 9 文宗 32年 6月 丁卯條, 文宗 34年 7月 癸亥條 參照.

11) 「高麗史」. 世家, 卷 3 成宗 10年 4月 庚寅條, “韓彥恭, 還自宋, 獻大藏經, 王迎入內殿, 遂僧開讀下教”

12) 「高麗史」. 世家, 卷 5 顯宗 18年 8月 丁亥條. “宋江南人李文通等, 來獻書冊, 凡五百九十七卷”

13) 「高麗史」. 世家, 卷 6 靖宗 11年 4月 戊申條. “秘書省, 進新刊禮記正義四十本, 毛詩正義四十本, 命藏一本於御書閣, 餘賜文臣”

14) 「高麗史」. 世家, 卷 8 文宗 13年 2月 戊戌條. “知京山府事殿中內給事李成美, 新進雕隋書六百八十板, 詔置秘閣, 各賜衣襪”

15) 「高麗史」. 世家, 卷 9 文宗 37年 3月 己丑條. “命太子, 迎宋朝大藏經, 置于開國寺, 仍設道場”

16) 「高麗史節要」. 卷 6 宣宗 3年 6月條. “釋煦還自宋, …煦獻釋典及經書一千卷”

17) 「高麗史」. 世家, 卷 10 宣宗 7年 12月條. “宋賜文苑英華集”

18) 「高麗史」. 世家, 卷 13 睿宗 9年 6月 甲辰條. “甲辰朔, 安稷崇, 還自宋帝賜王樂器”

錄을 보내온 기록이 있으니,¹⁹⁾ 이는 곧 고려가 일방적으로 송의 전적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大藏經」을 비롯한 佛書와 儒家의 경전류 등 중국의 전적들이 고려로 유입되어 우리의 정신문화를 일깨우고 문화창달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는 木板으로 재생산되어 축적됨으로써 국가도서관의 장서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한편, 고려 초기에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고 개편될 때 중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았다. 성종 때에 창설된 國子監은 기관의 명칭과 그 직제를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으니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의 국가도서관들은 宋代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제 殿閣들과 대비해 볼 때 閣號와 직제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이 많이 보인다. 고려의 보문각이 설치된 예종 11년(1116) 이전 송대의 제 전각을 살펴 설립시기와 기능 및 직제를 略述해 보기로 한다.

太平興國 3년(978)에 본격적인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시작한 崇文院은 院內에 史館, 昭文館, 集賢院이 있어 장서를 四部로 나누어 소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장하기 위해 學士와 檢討, 校勘, 校理 등의 직제를 두었다.²⁰⁾

太宗 13년인 端拱 2년(989)에는 송문내에 秘閣을 건립하고 송문원의 三館에 있던 眞本과 古書, 墨跡 등을 소장하였으며 直閣과 校理를 두어 관장케 하였다.²¹⁾

大中祥符연간(1008~1016)에 건립된 龍圖閣에는 송 太宗의 御製, 御書와

19) 「高麗史」. 世家, 卷 10 宣宗 8年 6月 丙午條. “李資義等還自宋, 奏云帝聞我國書籍, 多好本, 命館伴, 書所求書目授之…”

20) 「宋史」. 卷 164. 職官志 卷 117, 職官 4 秘書省條. “太平興國初, 於昇龍門東北, 册立三館書院. 三年, 賜名崇文院, 遷西館書, 貯焉. 東廊爲集賢書庫, 西廊分四部, 爲史館書庫. …天禧初, 三館爲額, 置檢討校勘等員. …集賢院校理, 自校理而上職, 有大等內外官, 並許帶思數仍舊, 又立試中人館職法, 選人, 除正字升殿侍立. …五年, 置集賢院學士, 并對校黃本書籍館員”

21) 「宋史」. 卷 164. 職官志 卷 117, 職官 4 秘閣條. “秘閣, 係端拱二年, 就崇文院中堂建閣, 以三館書籍眞本, 并內出古書跡等藏之. 淳化元年, 詔次三館, 置直閣以朝官充, 校理以京朝官充”

문집, 圖書 및 宗正寺에서 바친 屬籍·世譜 등을 간직하고 學士, 直學士, 待制, 直閣 등의 관원을 두었다.²²⁾ 仁宗 즉위년(1021)에는 天章閣이 완성되어 先王인 眞宗의 어제, 어서를 봉안하고 학사, 직학사, 대제 및 侍講學士 등의 직을 두었다.²³⁾

慶曆 원년(1041)에는 천장각의 동서편에 구 壽昌閣을 고쳐 寶文閣을 설립하였다. 英宗은 부왕인 仁宗의 어서를, 神宗은 부왕인 英宗의 어서를 이곳 보문각에 봉안하도록 하였고 이를 관장하는 학사, 직학사, 대제 등의 직제를 두었다.²⁴⁾

元符 원년(1098)에 설립된 顯謨閣에는 神宗의 御集을 봉안하고 학사, 직학사, 대제의 직을 두었으며,²⁵⁾ 徽宗연간인 大觀 2년(1108)에는 徽猷閣이 설립되어 선왕인 哲宗의 어집을 봉안하였다. 여기에도 보문각과 현모각과 마찬가지로 학사, 직학사, 대제의 직제를 두어 장서를 관장케 하였다.²⁶⁾

이들 송대의 국가도서관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은 崇文院으로 여겨진다. 院內에 三館이 있었고 후에 별도의 장서처로 秘閣을 건립하였을 정도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직제 또한 학사 외에 檢討, 校勘, 校理 등의 하급관원을 다양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아도 그 규모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후의 제전각은 先王의 御書類를 봉안하기 위해 건립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직제도

22) 『宋史』. 卷 162. 職官志 卷 115, 職官 2 龍圖閣條 “龍圖閣學士, 直學士, 待制 大中祥符中 建在會慶殿西偏, 北連禁中, 閣東曰資政殿, 西曰述古殿, 閣上, 以奉太宗御書, 御製, 文集及典籍, 圖書, 寶端之物, 及宗正寺所進屬籍世譜, 有學士, 直學士, 待制, 直閣等官”

23) 『宋史』. 卷 162. 職官志 卷 115, 職官 2 天章閣條 “天章閣學士, 直學士, 待制 天禧四年 建在會慶殿西, 龍圖閣之北, 明年仁宗即位, 修天章閣畢, 以奉安眞宗御製. … 天聖八年, 置待制, 慶曆七年, 又置學士, 直學士, 又有侍講學士”

24) 『宋史』. 卷 162. 職官志 卷 115, 職官 2 寶文閣條. “寶文閣學士, 直學士, 待制, 閣在天章閣之東西, 序羣玉藥珠殿之北, 卽舊壽昌閣, 慶曆改曰寶文. 嘉祐八年, 英宗即位, 詔以仁宗御書, 藏于閣, 命王珪, 撰記立石. 治平四年, 神宗即位, 始置學士, 直學士, 待制 恩賜如龍圖英宗御書, 附于閣”

25) 『宋史』. 卷 162. 職官志 卷 115, 職官 2 顯謨閣條 “顯謨閣學士, 直學士, 待制 元符元年 曾布鄧洵仁, 各申請建閣, 詔翰林學士, 中書舍人, 撰閣名. 五以聞, 遂建閣, 藏神宗御集, 以顯謨爲名. 徽宗建中靖國元年, 詔以顯謨閣, 爲熙明閣, 仍置學士, 直學士, 待制”

26) 『宋史』. 卷 162. 職官志 卷 115, 職官 2 徽猷閣條 “徽猷閣學士, 直學士, 待制 大觀二年初 建徽猷閣, 以藏哲宗御集, 置學士, 直學士, 待制”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천장각의 경우 시장학사라는 직제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어 이곳에서는 장서처뿐만 아니라 侍講院의 역할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睿宗은 왕 11년(1116)에 송의 각호와 동일한 보문각을 설립하였고, 그 이듬해에도 송의 그것과 동일한 천장각을 설립하여 송제가 보낸 親制 國書와 御筆, 御書를 봉안하도록 하였다.²⁷⁾ 설립 당시 고려 보문각의 직제를 송 보문각의 직제와 대비해 보면 동일한 직명이 여럿이 보인다. 예종은 늘 유학을 숭상하고 華風을 흠모했다고 하는데, 그 慕華의 정도는 「高麗圖經」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보문각과 청연각에 봉안된 송제의 어제, 조칙, 서화는 반드시 절을 하고 容貌를 엄숙히 한 다음 쳐다보라고 훈령하였다²⁸⁾는 것이다. 또한 그는 송의 문물에 도취한 나머지 송의 歸化人인 胡宗旦의 壓勝術에도 감혹되는²⁹⁾ 등 문화의 弊端까지도 일러키게 한 장본인이다. 이처럼 예종이 기울인 송의 문물제도에 대한 각별한 자세를 볼 때, 그가 宋朝의 각호와 職制를 모방하여 보문각을 비롯한 국가의 도서관을 설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3. 肅宗·睿宗년간의 文興 施策

고려 초기 국가의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되고 국력이 강성하며 문화가 꽃피는 盛世를 이끌었던 文宗 이후, 順宗-宣宗-獻宗-肅宗으로 이어지는 왕위의 계승은 결코 순탄치 않은 내부의 정치적 파란과 곡절이 있었다. 문종의 位를 이어받은

27) 「高麗史」, 世家, 권 14 睿宗 12年 6月 癸亥條. “命置天章閣于禁中, 藏宋帝所賜親製詔書及御筆御書.”

28) 徐兢 撰.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 6, 宮殿 2 延英殿閣條. “王以聰明淵懿, 篤實輝光之德, 崇尚儒術, 樂慕華風, 故以大內之側, 延英書殿之北, 慈和之南, 別創寶文·清讌二閣, 一以奉聖宋皇帝御製, 詔勅書畫, 揭爲訓則, 必拜稽肅容然後, 仰觀之, 一以集周孔軻雄以來古今文書…”

29) 「高麗史」, 卷 97 劉載傳附 胡宗旦傳. “宗旦, 性聰敏, 博學能文, 楚楚自喜, 兼通雜藝, 頗進壓勝之術, 王, 不能無惑”

順宗은 병약하여 요절하고 後嗣가 없어 문종의 제 二子인 宣宗에게 왕위가 전해졌다. 선종의 뒤를 태자가 이으니 그가 곧 獻宗이다. 그러나 현종은 幼弱하여 그의 모후가 국정을 전담함에 왕실은 매우 危弱해졌다. 이를 기회로 外戚 權臣인 李資義가 국권을 도모하고자 할 때 문종의 제 三子요 현종의 叔父인 鷄林公이 이자의 일당을 차단하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肅宗인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王位에 등극하였지만 숙종은 어릴적부터 총명하였고 성장함에 이르러서는 敬虔·勤儉하고 雄毅·果斷하였으며 五經과 子·史에 널리 통하였기에 부왕인 문종으로부터 일찌기 왕실을 부흥할 만한 인물로 寵愛를 받았다.³⁰⁾ 왕위에 오른 숙종은 好文의 군주로 자주 문신들과 시문을 唱和하였으며 때때로 내부의 서적을 열람하고 그것을 애독하는 등 학술과 문화의 창달에 몹소 앞장섰다.

숙종이 학문을 장려하고 문화를 興隆시키기 위해 펼친 시책 중에서 특히 왕실의 도서관과 장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卽位한 원년(1096) 7월에 文德殿에 나아가 역대 秘藏의 서적을 열람하고 卷帙이 완전한 것을 가려 文德殿과 長齡殿 및 御書房, 秘書閣 등에 나누어 所藏하게 하였으며,³¹⁾ 동왕 4년(1099) 4월에는 延英殿에 出御하여 어장 문서를 몹소 검열한³²⁾ 바 있다. 동왕 6년(1101) 정월에는 九經과 子·史의 서적 각 1권을 臺·省·樞密院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였으며,³³⁾ 그 이듬의 달에는 重光殿에서 서적을 열람하였다.³⁴⁾ 그리고 동년 3월에는 秘書省의 서적판목이 委積하여 훼손되므로 명을 내려 書籍舖를 국자감에 설치하여 이들 판목을 移藏하게 하고 널리 摹印케 하였다.³⁵⁾

30) 「高麗史」. 世家, 肅宗1 肅宗明孝大王條. “幼而聰慧, 及長, 孝敬勤儉, 雄毅果斷, 五經子史無不該覽. 文宗愛之, 嘗曰 後之復興王室者 其在爾乎.”

31) 「高麗史節要」. 第 6卷, 肅宗 元年 七月條. “御文德殿, 覽歷代秘藏文書, 擇部秩完全者, 分藏于文德, 長齡殿, 御書房, 秘書閣, 又賜兩府宰臣, 及誥院·史翰·文臣, 內侍 有差”

32) 「高麗史」. 世家, 卷 11 肅宗 4年 4月 壬辰條. “御延英殿, 檢閱御藏文書”

33) 「高麗史節要」. 第 6卷, 肅宗 6年 正月條. “制, 以九經子史各一本, 分置臺, 省, 樞密院”

34) 「高麗史」. 世家, 卷 11 肅宗 6年 2月 戊午條. “御重光殿, 閱書籍”

35) 「高麗史節要」. 第 6卷, 肅宗 6年 3月條. “制, 以秘書省文籍, 板本, 委積損毀, 命置書籍舖

顯宗 12년(1021) 설치된 문덕전³⁶⁾은 文宗-宣宗시대를 거치면서 불교행사를 위한 道場 설치, 과거시험(覆試), 政廳과 親問 등의 장소로 사용된 殿閣이다. 숙종의 즉위와 더불어 문덕전이 藏書의 기능을 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문덕전이 본격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숙종에 의해서인 것이다. 또한 숙종은 연영전, 중광전, 장령전과 같은 전각에 왕실의 문서와 전적을 분산 소장하게 하고, 장서의 점검을 직접 지휘하는 등 적극적인 藏書管理 정책을 시행했다. 한편 고려시대의 국가 교육기관인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여 서적을 인출하였다 하니 서적포는 국자감의 부속기관으로 敎材 출판과 교육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숙종은 재위 10년이라는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文運을 興隆시키기 위해 주요 문서와 전적의 分散 所藏, 적극적인 장서관리, 서적 인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고려 전기 국가도서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숙종의 뒤를 이은 睿宗은 부왕의 영향인 듯 好文의 군주로, 天資가 明哲하여 일찍이 東宮에 있을 때부터 賢士들과 從遊하여 학문을 닦았다고 한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학교를 두어 현명한 선비를 길러내는 것은 善政의 근본이라³⁷⁾고 역설하여 동왕 4년(1109) 7월 國學에 七齋를 설치하여 인재의 양성에 힘썼다. 또한 文武兩學은 국가 교화의 근원이라³⁸⁾는 이념 아래 동왕 14년(1119) 7월에는 국학에 養賢庫를 설치하여 선비들을 길러내는 터전으로 삼아 널리 학사를 베풀어 儒學과 武學을 닦게 하고 명유를 선발하여 유학의 경전을 강론케 하였다.

한편 동왕 10년(1115) 7월에 王字之 등을 사신으로 송에 보낼 때에 예종은 進士 金端, 甄惟底, 趙奭, 康就正, 權適 등 5人を 따라가게 하여 송의 대학인 국자감에 就學케 하였다.³⁹⁾ 이후 송제(徽宗)는 이 유학생들을 특별히 集英殿으

于國子監, 移藏之, 以廣摹印”

36) 『高麗史』. 世家, 卷 4 顯宗 12年 3月 丙申條. “啟文功殿, 爲文德殿”

37) 『高麗史』. 選舉志 2 學校條, “二年, 制曰, 置學養賢, 三代以降, 致治之本也”

38) 『高麗史』. 世家, 卷 14 睿宗 11年 4月 庚辰條. “制曰, 文武兩學, 國家教化之根源”

39)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0年 7月 戊子條. “遣吏部尙書王字之, 戶部侍郎文公美 如宋 謝恩兼進奉, 仍遣進士金端, 甄惟底, 趙奭, 康就正, 權適等五人, 赴大學”

로 불러 친히 策試하고 이들에게 上舍及第를 주었다 한다. 이러한 유학생의 派遣은 예종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펼친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예종이 국가 인재의 양성을 위해 시행한 文教의 시책 외에 그가 재위 17년간 쌓은 치적을 살펴보면, 지방제도를 비롯한 국가 제도의 更定, 예의와 격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禮儀詳定所의 설치, 救恤과 권농책으로 민생을 안정시킨 일, 궁전과 불교사원의 營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국가 도서관인 淸讌閣과 寶文閣 및 天章閣을 설립하여 국가의 문헌을 보존, 관리하고 儒臣들이 경전을 강론하는 재교육의 장으로 삼아 문화와 학술의 暢達에 기여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업적일 것이다.

4. 淸讌閣과 寶文閣 설립의 경위

청연각의 설립은 예종 11년(1116) 8월의 일로 「高麗史節要」와 「高麗史」의 기사를 통해서 당시의 사정을 살펴 볼 수 있다. 「高麗史節要」에는 예종이 궁궐 내에 청연각을 짓고 學士, 直學士, 直閣 1명씩을 임명하여 朝夕으로 經書를 강론케 하였다⁴⁰⁾고 기록하고 있다. 청연각이 설립되어 실제로 직에 임명된 사실은 「高麗史」의 동왕 11년 8월 甲申條에 洪灌을 청연각 학사로 鄭克恭을 직학사로 尹諧를 직각으로 각각 임명하였다⁴¹⁾는 기록이 있어 설립과 동시에 관원이 임명되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관직의 品階를 보면 학사가 종3품, 직학사가 종4품, 직각은 종6품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후에 교감 4인이 추가로 직제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⁴²⁾ 설립 당시 청연각의 학사로 임명된 홍관(?~1126)

40) 「高麗史節要」. 第 8卷, 睿宗 11年 8月條. “禁中, 作淸讌閣, 選置學士, 直學士, 直閣, 各一員, 朝夕講論經籍”

41)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1年 8月 甲申條. “以洪灌, 爲淸讌閣學士, 鄭克恭, 爲學士, 尹諧, 爲直閣”

42)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淸讌閣, 選置學士, 直學士, 直閣各一人, 朝夕講論經書, 學士視從三品, 直學士視從四品, 直閣視從六品, 又置校勘四人, 其二, 以御書院校勘充之, 其二, 以職事兼之…”

은 뒤에 보문각 학사로도 임명되어 왕의 명령을 받아 金富侁, 尹諧 등과 함께 三韓 이래의 사적을 모아 『編年通載續編』을 撰進하였다. 또한 그는 金生의 필법을 이어받은 達筆家로서 당시 제 전각의 扁額이 그의 글씨였으며 金緣이 지은 淸讌閣記를 돌에 새긴 일도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예종은 비중있는 文臣을 淸讌각의 閣臣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문흥정책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설립된 淸讌각은 과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 기관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설립과정과 더불어 淸讌각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高麗史節要』에 나타나는 기사이다(주 40) 참조). 이를 통해 淸讌각의 가장 주된 기능은 경전 강론소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高麗史』를 보면 동왕 11년(1116) 11월에 왕이 翰林學士承旨 朴景仁에게 명하여 『尙書』의 2典 즉 堯典 과 舜典을 강론하게 했다⁴³⁾는 기사가 있으며, 동 12월에는 보문각 校勘 高仙柔에게 『書經』의 大禹謨 皋陶謨 益稷 3편을 강론하도록 명했다⁴⁴⁾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당대의 名儒에게 淸讌각에서 경전을 강론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예종의 재위 마지막 해인 동왕 17년(1122)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高麗史』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열거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43)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1年 11月 庚子條. “御淸讌閣, 命翰林學士承旨朴景仁, 講尙書二典”

44)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1年 12月 庚申條. “庚申朔, 御淸讌閣, 命寶文閣校勘高仙柔, 講書大禹, 皋陶謨, 益稷三篇”

<표 1> 예종년간 청연각에서 강론한 사례

年月	講論內容	講論官	備考
11年(1116) 11月	「尙書」堯典, 舜典	朴景仁	翰林學士承旨
11年(1116) 12月 庚申	「書經」大禹謨, 高陶謨, 益稷	高仙柔	寶文閣校勘
11年(1116) 12月 壬午	「禮記」中庸, 投壺篇	池昌洽	內侍 良醞令
12年(1117) 正月	「周易」乾卦篇	韓獻如	翰林學士承旨(韓安仁의 初名)
12年(1117) 11月 甲午	「詩經」關雎篇	朴昇中	翰林學士
12年(1117) 11月 戊申	「禮記」	金緣	門下侍郎
	「書經」無逸篇	胡宗旦	起居郎
12年(1117) 12月	「書經」洪範篇	金緣	
13年(1118) 正月	「周易」泰卦篇	洪灌	寶文閣學士
13年(1118) 3月 壬戌	「詩經」魯頌篇	金富侁	寶文閣待制
13年(1118) 3月 辛未	「周易」泰卦篇	韓安仁	
13年(1118) 6月	「書經」說命篇	李永	寶文閣學士
13年(1118) 閏9月	「老子」	韓安仁	
13年(1118) 11月	「周易」復卦篇	韓安仁	
14年(1119) 8月	「書經」洪範篇	朴昇中	
14年(1119) 11月	「中庸」	朴昇中	
15年(1120) 6月 甲戌	「書經」洪範篇	朴昇中	
15年(1120) 6月 乙卯	「禮記」月令篇	鄭克永	國子祭酒
15年(1120) 6月 丁酉	「書經」太甲篇	金緣	
15年(1120) 11月	「詩經」泂水篇	金富侁	
16年(1121) 3月	「禮記」月令篇	朴昇中	起居注
	「書經」說命篇	金富軾	
16年(1121) 閏5月 庚辰	「書經」洪範篇	朴昇中	起居舍人
16年(1121) 閏5月 辛卯	「詩經」雲漢篇	林存	
17年(1122) 正月	「周易」乾卦篇	金富軾	中書舍人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종이 청연각에서 儒臣들로 하여금 경전을 강론하도록 한 대상은 「老子」를 제외하면 모두 儒家의 경전류이며 易·書·詩의 三經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에서도 「書經」을 강론한 사례가 가장 많으며, 강독의 방법으로는 한 책을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씩 골라 강독하였으니 현대의 독서방법으로 치자면 발췌독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왕 11년(1116) 12월 壬午日에 「禮記」의 中庸과 投壺篇을 內侍인 池昌洽에게 강론하도록 했다는 기사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中庸」은 본래 「禮記」의 제 31편으로 수록되어 있던 篇名인데 漢代에 와서 「禮記」에서 분리된 단행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中庸」이 유가의 기본경전으로 「論語」, 「孟子」, 「大學」과 함께 이른바 四書로 編定되게 된 것은 송대 理學의 발흥과 시기를 같이 한다. 송대에 이르러 程顥, 程頤 형제는 「中庸」을 孔門에 傳授된 心法이라 하여 매우 중시하고 研討를 거듭하였으며, 朱熹(1130~1200)는 二程의 설을 계승 발전시켜 「中庸章句」, 「中庸或問」 등을 저작하여 「中庸」의 의의를 천명하고 사서로 편정하였다. 예종 당시는 「中庸」이 사서로 편정되기 이전이므로 「禮記」에 들어있는 한 편으로 이 책이 읽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講讀官으로 나섰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翰林學士承旨 韓安仁, 翰林學士 朴昇中, 門下侍郎 金緣, 보문각대제 金富侁, 起居注 金富軾 등으로 당대에 고위 관직을 역임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巨儒들이다. 그런데 유독 「禮記」의 中庸과 投壺篇을 강독한 사람은 內侍 池昌洽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내시로 良醞令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바, 이 벼슬은 궁중의 술과 감주를 주관하는 부서인 良醞署의 책임자로 그 품계는 정8품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이러한 직함에 내시인 그가 御前에서 경전을 강론했다함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참 흡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詳考하기가 어렵다. 어떠한 예종은 그가 逝去하기 불과 3개월 전까지 淸연각에 나아가 경전의 강론에 참여하는 등 재위 기간 내내 학문의 탐구에 열정을 바쳤음을 볼 수 있다.

왕의 명령으로 열린 경전 강론의 장에서는 비중 있는 학자를 배석시켜 강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응답하도록 하거나 45) 中樞 宰臣 및 학사들을 대거 참석시켜 聽講토록 한 적이 있다. 46) 이는 곧 淸연각이 왕에게 경전을 進講하는 經筵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사들까지 참석범위를 확대시킨 학술강연 또는 학술 토론의 장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예종연간 23차례에 이르는 빈번한 경전강론과 학술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시 강론의 대상이 되는 교재 또는 참고서적의 비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淸연각이 경전강

45)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2年 正月 丁巳條. “御淸讌閣, 命韓暲如, 講周易乾卦, 使朴昇中·金富侁, 問難, 親賜酒食”

46)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2年 12月 癸酉條. “御淸讌閣, 命金緣, 講書洪範, 令諸王·宰樞及學士, 聽講, 仍賜宴唱和, 各賜貂皮·煖履”

론과 학술토론을 지원하는 圖書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의 사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徐兢撰 「高麗圖經」을 보면 청연각에 諸史와 子·集의 전적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⁴⁷⁾ 「東文選」所收, 金緣의 ‘清讌閣記’에도 寶文·清讌二閣에 송 황제의 어제와 詔勅, 서화 및 周公·孔子 이래의 고급 전적을 봉안하고 소장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⁴⁸⁾ 또한 예종 16년(1121)에는 왕이 청연각에 나아가 宋帝가 하사한 서화 등을 중추의 宰臣들에게 宣示 하였다⁴⁹⁾는 기사도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청연각은 儒術을 숭상하는 예종의 주도하에 명유들에게 유가의 경전을 강론하게 하고 때로는 학술토론과 강연을 수행하는 궁중내 핵심적인 학술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이를 위해 많은 장서를 축적한 국가 도서관으로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 기관임이 분명한 것이다.

청연각이 설치된 지 3개월 뒤인 예종 11년(1116) 11월에 왕은 다시 보문각이라는 기관의 설치를 명한다. 청연각이 경전의 강론소와 궁중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기관의 설립을 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즉 「高麗史」에서는

“청연각이 금내에 있어 학사들의 숙직과 출입이 어려워 그 곁에 따로 전각을 세우고 官號를 고쳐 보문각이라 했다. 얼마 후 紅樓 아래의 南廊을 수리하여 학사들이 會講하는 장소로 삼고 精義堂이라 이름하였으며 그 좌우에 휴식하는 곳도 마련하였다.⁵⁰⁾”

47) 徐兢撰.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 6. 宮殿 2 延英殿閣條. “...西曰清讌, 以藏諸史子集”
48) 金緣. 清讌閣記. 徐居正 等編. 「東文選」. 卷 64 “...故以大內之側, 延英書殿之北, 慈和之南, 別創寶文·清讌二閣, 一以奉聖宋皇帝御製, 詔勅書畫, 揭爲訓則, 必拜稽肅容然後, 仰觀之, 一以集周孔軻雄以來古今文書, 日與老師宿儒, 討論敷暢先王之道, 藏焉修焉息焉游焉...”
49) 「高麗史」. 世家, 卷14 睿宗 16年 12月 壬辰條. “御清讌閣, 以宋帝所賜書畫等物, 宣示宰樞侍臣”
50)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睿宗十一年, 禁中作清讌閣, 選置學士·直學

고 되어 있다. 또한 「高麗史節要」에는

“청연각이 금내에 있어 학사들의 숙직과 출입이 어려우므로 이에 홍루 아래의 남랑을 수리하여 정의당이라 이름하고 그 좌우에 휴식하는 곳을 마련하여 보문각이라 고쳐 불렀다.⁵¹⁾”

는 것이다. 보문각의 설립동기는 청연각이 禁內 즉 왕의 處所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 학사들이 출입하고 숙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 사료의 기록이 일치한다. 그런데 보문각이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들 두 사료의 기록상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高麗史」에서는 보문각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학사들의 會講所인 정의당과 휴식하는 곳을 마련하였다는 것이고, 「高麗史節要」에서는 기존의 樓閣을 수리하여 정의당과 휴식소를 마련하고 이를 보문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의당과 휴식소는 보문각의 부속시설이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보문각과 정의당 및 휴식소의 설치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청연각 설립 3개월 후라는 짧은 기간에 보문각이 다시 설립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아마도 「高麗史節要」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누각을 보수하여 보문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⁵²⁾

그러나 학사들의 출입과 숙직의 불편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이 보문각이라는 전각을 별도로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動機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연각이 단지 경전의 강론소로만 사용되었다면 常時로 학사들이 출입하지는

士·直閣, 各一人, 朝夕, 講論經書;… 尋以清燕閣, 在禁內, 學士直宿出入爲難, 就其旁別置閣, 改官號曰寶文, 加置待制, 官班視給舍, 直賜金紫, 乃修紅樓下南廊, 爲學士會講之堂, 賜號曰精義, 就其左右爲休息之所, 充其選者, 皆一時豪傑 …”

51) 「高麗史節要」. 第 8卷, 睿宗 11年 11月條. “以清讌閣, 在禁內, 學士直宿出入爲難, 乃修紅樓下南廊, 爲學士會講之堂, 賜號曰精義, 就其左右爲休息之所, 改號寶文閣, 以清讌閣學士充之”

52) 이현희는 보문각 설립의 과정을 「高麗史節要」의 기록에만 의존한 듯 “정의당이 곧 보문각의 前號였다”라 하여 정의당을 보문각으로 改號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이현희. “고려시대의 도서관 연구 9 -보문각고.” 「도서관」 통권 159호, 1971. 21). 그러나 보문각 설립 35년 뒤인 의종5년(1151) 까지도 정의당에 관한 기사가 보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않았을 것이고 숙직 또한 필요하지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실제로 청연각에서 왕이 문신들과 경전을 강론한 사례는 연중 常設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연간 3차례 내지는 5차례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종 당시 궁중에는 先王 때부터 지속된 송과의 교류로 인한 중국 전적의 流入, 중국서의 開板, 국내 저술서의 개판 등으로 많은 전적이 蓄積되어 청연각에 소장되고 있었고, 이러한 전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에 나타나는 관원 외에도 雜織 吏屬들의 잦은 출입과 숙직이 並行되었을 것이다. 예종은 청연각이 왕의 處所와 너무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업무처리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청연각이 가지고 있던 도서관적인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각의 설립을 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문각의 설립으로 청연각의 職制가 移管되고 장서가 移置되어 비로소 보문각이 국가의 중추적인 도서관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5. 寶文閣의 機能과 職制

5.1 機能과 變遷

보문각의 설립과 더불어 청연각의 職制가 보문각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청연각이 수행했던 기능의 分掌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경전 강론소로서의 기능과 전적 소장의 기능 중 전적 소장의 기능은 보문각으로 이관되고, 이때부터 청연각은 주로 경전 강론소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다. 물론 강론을 위한 기본적인 경전의 보관은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종 11년(1116) 11월 이후 청연각에서는 왕을 모시고 경전을 강론한 일 외에는 다른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보문각 설립 이후 청연각 장서의 얼마가 어떠한 과정으로 보문각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詳考하기가 어렵다. 다만 직제가 이관되어 청연각에는 常住하는 관원이 없고 청연각에서의 경전 강론 또한 보문각 학사들이 主管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장서가 보문각으로 移藏되었음을 추론케 한다. 한편 忠烈王 16년(1290)에 元의 叛軍인 哈丹이 침략해 왔을 때 보문각의 전적을 江華島로 옮겼다⁵³⁾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예종 이후 보문각이 고려의 핵심적인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예종 이후 보문각은 閣名의 개칭, 타 기관으로의 併合, 復置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麗末에 이르기까지 존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그 기능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毅宗 5년(1151)에 보문각의 부설로 文牒所가 설치되어 文士 14인과 보문각 교감이 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⁵⁴⁾ 한다. 문첩소가 어떠한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해 6월 「高麗史」 世家의 기사에 왕이 보문각 학사, 대제 및 한림학사에게 명해 매일 精義堂에서 「冊府元龜」를 校勘하도록 했다⁵⁵⁾고 하니, 문첩소의 사업이란 필시 이와 같은 전적 교감의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明宗 22년(1192) 4월에는 왕명에 따라 보문각에서 당시의 高官과 書筵의 儒臣들이 「續資治通鑑」을 교감하고 그것을 州와 縣에 보내 목판으로 인쇄하여 올리도록 하였다⁵⁶⁾고 한다. 따라서 이때까지 보문각은 장서의 소장과 관리라는 도서관으로서의 주된 임무 외에 典籍의 校勘이라는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神宗 원년(1197)에는 元子를 侍講하는 書筵이 보문각에 처음으로 개설되게 된다. 忠穆王 초와 恭愍王 원년(1351)에도 서연이 보문각에서 열리는데, 이 때에는 書筵官을 番을 나누어 매일 시강하는 등 강화된 서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후 恭讓王 2년(1390)에 書筵은 經筵으로 改稱되고 令經筵事, 知經筵事, 講讀官 등의 직제가 설치되게 된다. 청연각에서 왕을 모시고 강전을 강론한

53) 「增補文獻備考」, 卷 第242, 藝文考 1. “忠烈王十六年, 以國史及寶文閣·秘書寺文籍, 于江華, 以哈丹亂也”

54)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毅宗五年, 始置文牒所於寶文閣, 以文士十四人及寶文閣校勘, 專掌其事, 命司空林光, 爲別監”

55) 「高麗史」, 世家, 卷17 毅宗 5年 6月條. “命寶文閣學士·待制及翰林學士, 日會精義堂, 校冊府元龜”

56) 「高麗史」, 世家, 卷20 明宗 22年 4月 壬子條. “命吏部尙書鄭國儉·判秘書省事崔說, 集書筵諸儒於寶文閣, 繼校增續資治通鑑, 分送州縣, 雕印以進, 分賜侍從儒臣”

기록이 예종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毅宗 3년(1125)에 청연각에서 보문각 학사들과 연회를 베풀었다⁵⁷⁾는 기사가 나타난 이후에 청연각 자체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神宗 원년에 보문각에 서연이 개설된 이래로부터 보문각은 과거 청연각이 맡았던 경진 강론의 임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의 지배로 인하여 국력이 쇠퇴하고 國權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麗末에 이르러 보문각은 국가의 運勢와 같이하면서 閣號의 格下와 合併 등의 시련을 겪게 된다. 忠烈王 원년(1274)에 元에서는 고려 왕실에서 사용하는 稱號와 官制가 자국의 것에 비등하다 하여 이를 降等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려에서는 왕의 명령인 ‘宣旨’를 ‘王旨’로, 왕의 자칭인 ‘朕’을 ‘孤’로 하는 등 굴욕적인 호칭의 개칭이 있었다. 동시에 중앙관직에 대해서도 합병과 관호의 개칭이 단행되었으니, 이를 테면 中書門下省과 尙書省을 합하여 僉議府로 하였고 國子監을 國學으로, 翰林院을 翰林署로 각각 개칭하였다. 이때에 寶文閣도 寶文署로 격하된 관호의 개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동왕 24년(1298)에는 同文院과의 합병이 단행되게 된다.⁵⁸⁾

閣에서 署로의 개칭은 곧 기관의 격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원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보문각 자체의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동왕 16년(1290) 合丹의 침입시에 보문각의 文籍을 강화로 옮겼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당시까지도 국가의 중요한 전적을 소장하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忠肅王 원년(1313)에는 瀋王(忠宣王)의 명령으로 다시금 寶文閣이라는 이름으로 復置가 이루어지는데,⁵⁹⁾ 이때에는 職制의 개편도 단행이 되었고 관직의 品階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아 이전 보문각의 기능과 권위를 回復하려는 시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高麗史」 백관지에 의하면,

57) 「高麗史」. 世家, 卷17 毅宗 3年 7月 壬辰條. “宴寶文閣學士文公裕, 直閣高瑩夫, 于清謙閣, 略君臣之禮”

58)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忠烈王元年, 改寶文署. 二十四年, 忠宣併於同文院, 文宗, 以同文院爲丙科權務官, 使一人, 三品兼之, 副使一人, 五三品兼之, 錄事, 四人, 二兼官.”

59)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忠肅王元年, 瀋王鈞旨復置寶文閣,”

“충렬왕 이후로 보문각은 다만 이름만 남았는데 충목왕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大臣들이 서연관을 두고 四番으로 나누어 날을 바꾸어 가면서 왕을 모시고 경서를 읽게 하자고 요청하였다. 공민왕 원년(1351)에 서연이 열렸는데 역시 번을 나누어 왕을 모시게 하였고, 辛禰(禰王) 원년(1374)에는 5품 이하의 4명을 侍學으로 하고 四番으로 왕에게 강론하게 하였다. 侍學이 갈릴 때에는 품계를 올려 4품으로 하기도 하였다.⁶⁰⁾”

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충선왕의 시도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목왕 이후 보문각의 기능은 주로 왕을 모시고 經史를 進講하고 治道를 論講하는 서연과 경연의 장소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朝에 이르러 고려의 기관명을 계승한 듯, 보문각이라는 명칭이 世祖 때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定宗 2년(1400) 5월에 고려 延英殿의 後身인 集賢殿을 고쳐 寶文閣이라 했다⁶¹⁾는 기사가 조선시대에 보이는 최초의 기록이다. 연영전은 고려 肅宗 때 전적을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 왕실도서관으로서 仁宗 14년(1136)의 官制 개혁 시 集賢殿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집현전은 조선조 건국 초에는 이름만 남아 있고 實任이 없이 존속하다가 定宗 원년(1398)에 와서 서적을 藏置하고 經義를 논하여 왕의 顧問에 대비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⁶²⁾ 이러한 집현전이 보문각으로 閣名이 바뀌었다는 것은 고려 보문각의 復活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世宗·世祖년간에 와서 보문각은 직제의 革罷와 復置를 거듭하다가 결국 世祖 6년(1460)에 이르러 완전히 혁파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 먼저 세종 2년(1420)에 보문각은 修文殿과 함께 官署職任 즉 실제의 직능이 없고 다만 문신들의 관직만 늘어난다 하여 鄭麟趾 등에 의해 그 혁파를 주장하는 상소가 있었

60)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忠烈王以後, 寶文閣徒有其名 忠穆王初立 大臣請置書筵官, 分四番, 更日侍講. 恭愍王元年, 開書筵, 亦分番入侍. 辛禰元年, 令五品以下四人侍講, 分兩番進講, 及遞官陞四品. 恭讓王二年, 改稱經筵, 置領經筵事·知經筵事·講讀官”

61) 「定宗實錄」. 卷 第3, 2年 5月 乙亥條 “改集賢殿 爲寶文閣”

62) 「國朝寶鑑」. 卷 3, 定宗 元年 3月條 “置集賢殿 令文臣更日會講 初高麗仁宗 改延英殿 爲集賢殿, 置文學之士. 國初, 有其名而無實, 至是大司憲趙瑛, 請多置書籍, 令文臣之帶館閣, 更日而會講經義”

다.⁶³⁾ 그러나 이 두 기관의 혁파로 인해 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실감한 유신들은 동왕 11년(1429) 5월에 보문각의 復置를 상소하였다.⁶⁴⁾ 世祖 6년(1460) 5월에 다시 보문각은 그 所任이 없다가하여 직제의 혁파를 吏曹에서 奏請하고 이를 따랐다.⁶⁵⁾ 하니 이때 보문각의 직제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문각은 고려 睿宗 11년(1116) 11월에 설립되어 조선 世祖 6년(1460)까지 고려시대 여타의 도서관보다 가장 오랫동안 存續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전적을 보존하고 관리한 국가 중앙도서관임을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는 典籍의 校勘과 經典의 講論 및 王世子와 국왕의 교육도를 수행하였으니, 보문각을 고려시대 대표적인 종합학술센터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5.2 職制

보문각의 직제는 「高麗史」의 百官志에 설립과정과 함께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즉 보문각의 설립당시에 청연각의 직제인 학사(종3품) 1인, 직학사(종4품) 1인, 직각(종6품) 1인 및 교감 4인이 보문각으로 이관이 되고 여기에 정5품 관직인 待制가 추가되었다. 대제는 관직의 반열을 給舍 즉 종4품관인 給事中 또는 舍人과 같이 하고 임명된 이들에게는 왕이 직접 金紫를 하사하였다 한다.(주 50 참조) 금자란 금도장과 자주색 끈으로 宰相급 관원이 착용한 것이다 文宗 30년(1076)에 官人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文散階에서 金紫光祿大夫는 총 29階 가운데 제3계로 정해졌으니, 금자를 착용하는 관직이 얼마나 고위의

63) 「世宗實錄」. 卷 第 7, 2年 3月 甲申條. “初因前朝之制, 修文殿 · 集賢殿 · 寶文閣, 大提學 · 提學, 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 · 提學 · 直閣, 三四品爲之. 然, 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官而已, 至是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64) 「世宗實錄」. 卷 第 44, 11年 5月 壬寅條. “臣等, 以爲宜復修文殿 · 寶文閣, 量宜定數, 大小文臣之文藝行義爲人, …”

65) 「世祖實錄」. 卷 第 20, 6年 5月條. “吏曹啓, … 請自今, 勿用製述, 令春秋館 · 藝文館 · 吏曹堂上, 會議政府, 綱目 · 左傳 · 宋元節要中, 講一書, 三處通者差下, 又經筵 · 集賢殿 · 寶文閣 · 修文殿等官, 並虛銜無所任, 請革之, 又議政府綠事, 以遞兒, 除權務職者, 稱議政府綠事, 似無分卞, 請遞兒職銜, 改稱架閣庫副綠事, 皆從之.”

관직인가를 가늠케 한다. 그런데 보문각 대제에 임명된 관원에게 當代의 문산계에 합당치 않은 급자를 사하였다 하니,睿宗이 보문각을 존귀하게 여겨 그 관원을 얼마나 優待하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제에 中樞內臣이 겸직한 提學, 同提學 및 管句, 同管句의 관직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그 후에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시 종2품의 大學士 1인이 보문각의 직제에 들어갔다고 되어있다. 제거, 동제거 및 관구의 관직은 文宗 때에 成均館에 설치한 직제로 당시에도 모두兼任 관직이었다.⁶⁶⁾ 아래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문각에 이들의 직이 실제로 임명된 사례는 毅宗 5년(1151) 6월의 기록뿐이다. 한편 보문각의 首長이 종2품의 대학사로 品階가 상향된 시기는 임명의 사례를 살펴볼 때 대개 明宗연간(1170~1197)인 것으로 여겨진다.

보문각의 설립 당시인 예종 1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임명된 인물로는 구청연각 직제의 이관으로 자연 이동된 학사 洪灌, 직학사 鄭克恭, 직각 尹譜 및 새로 임명된 대제 金富佾, 교감 高先柔 등을 들 수 있다. 보문각의 직에 임명된 관원들은 당대의 豪傑이었다 하니, 주요 인물의 면면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홍관(? ~ 1126)은 唐城郡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肅宗 7년(1102) 史館의 直史館 신분으로 신축된 集祥殿의 扁額을 썼다. 신라 金生의 筆法을 본받은 명필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會慶殿의 병풍에 「書經」 無逸篇도 썼다고 전한다. 또한 청연각, 보문각, 寶殿書樓의 편액도 그의 글씨라 한다.睿宗 6년(1111)에 御使中丞이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東北面兵馬使가 되었다. 동왕 8년에는 禮部尙書로서 遼에 正使로 다녀왔으며 청연각·보문각 학사를 지낸 뒤 인종 때에 守司空上書左僕射에 올랐다. 그러나 이때 李資謙의 亂을 당하여 都城에서 숙직하다가 살해당했다. 시호는 忠平이다.

66)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成均館條. “文宗定, 提學·同提學·管句各二人, 判事一人, 皆兼官”

<표 2> 보문각직에 임명된 인물 : 設立時~忠肅王 이전

임명 또는 활동시기	직명	大學士	學士	直學士	直閣	校勘	待制	制舉	同提舉	管句	同管句
睿宗 11年(1116) 11月 11年(1116) 12月 13年(1118) 6月 15年(1120) 5月 17年(1122) 9月			洪 灌 李 永 朴昇中	鄭克恭	尹 諧	高先柔	金富佖 胡宗旦 金富軾				
仁宗 원年(1122) 12月 12年(1134) 7月 20年(1142) 1月			鄭克永	尹彦頤			金精嘗				
毅宗 3年(1149) 7月 5年(1151) 1月 10年(1156) 17年(1163)			文公裕 金永夫 鄭克永		高瑩夫		庚 弼 金富軾	庚 弼	金存中		
明宗 6年(1176) 7月 11年(1181) 10月		韓文俊			庚世積						
高宗 2年(1215) 8年(1221) 10年(1223) 14年(1227) 16年(1229) 19年(1232) 22年(1235)	琴 儀 韓光衍 崔正份			張自牧 李世華			李奎報				
忠烈王 1年(1275) 3年(1277) 8年(1282)			白文節	柳仁明 李行儉			鄭 興				

김부일(1071~1132)은 宣宗 때에 國子祭酒左諫議大夫를 지낸 金觀의 아들로 형은 富弼, 동생은 富軾과 富儀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直翰林院이 되었고 樞密院使 王暇를 따라 송의 사신으로 가서 名文을 지음으로써 송 哲宗의 찬사를 받았다. 숙종 때 拾遺知制誥를 거쳐 예종 때에 禮部郎中이 되었다. 또한 國子司業起居注로 보문각대제가 되어 왕과 유신들에게 經史를 강론함으로써 문명을 크게 떨쳤다. 사람됨이 관후하고 문장에 능하며 모든 사명을 맡아 윤색하였다 한다. 인종의 즉위와 더불어 同知樞密院事政堂文學翰林學士承旨가 되었고 동왕 3년(1127)

에는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다. 시호는 門簡이다.

이영(생몰년 미상)은 安城郡의 戶長으로서 京軍이 된 李仲宣의 아들이다. 숙종 때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이어 直史官이 되었다. 숙종 9년(1104) 東女眞을 정벌할 때 平章事 林幹을 따라 종군하였으나 여진에게 패하자 연좌되어 파면된 적이 있다. 예종이 潛邸에 있을 때 韓安仁, 李汝霖과 더불어 侍學하였다. 예종 8년(1113)에는 禮部侍郎으로 遼에 가서 天興節을 축하하였고, 동왕 11년에는 이자겸과 함께 송나라에 가서 大晟樂을 보내준 데에 사례하였다. 이듬해에는 右諫議大夫가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보문각학사로서 청연각에서 『書經』의 說命篇을 강론한 바도 있다. 인종이 즉위하여 知御史臺事實文閣學士로 삼았으나 이자겸의 난 때에 배척당하여 진도로 유배되었다. 사후에 조정에서 簽書樞密院事를 추증하였다. 타고난 성품이 바르고 곧아 權府에 아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부식(1075~1151)은 김부일의 동생으로 13·14세 무렵 부친을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숙종 1년(1096)에 과거에 급제하여 安西大都護府의 司錄과 參軍事를 거쳐 直翰林에 발탁되었다. 이후 20여 년 동안 한림원을 비롯한 文翰職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예종·인종에게 經史를 강론하는 일도 맡았다. 인종 8년(1130)에 政堂文學兼修國史로 승진하고 이듬해에는 檢校司空參知政事가 되었다. 동왕 10년(1132)에 妙淸이 西京遷都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平章事로 난을 진압하였다. 그 공으로 輸忠定難靖國功臣에 책봉되고 檢校太保守太尉門下侍中判吏部事로 승진하였다. 말년에 왕명을 받들어 『三國史記』를 편찬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고문체의 대가라 할 수 있고 『東文粹』와 『東文選』에 그의 글이 전한다. 死後인 의종 7년(1153)에 中書丞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烈이다. 보문각의 직은 예종과 인종 두 차례에 걸쳐 대제에 임명된 적이 있다.

박승중(생몰년 미상)은 현종 때 南幸扈從功臣인 朴暹의 증손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常安府錄事に 보임된 뒤 中書注書가 되었다. 예종 1년(1106)에 金緣 등과 함께 여러 음양서를 刪定하여 『海東秘錄』을 편찬하였다. 또한 翰林侍讀學士로서 朴景綽, 金黃元 등과 함께 詳定官이 되어 禮儀를 정하였다. 그는 中書舍人

을 거쳐 동왕 8년에 侍讀學士로서 김연과 더불어 「時政策要」 5책을 편찬한 적도 있다. 인종이 즉위하자 김부식, 정극영과 더불어 「睿宗實錄」의 편수관이 되었다. 동왕 1년에는 樞密院事가 되었는데 이자겸이 국정의 실권을 잡자 온갖 아첨을 다하여 동왕 3년에는 守太尉中書侍郎平章事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이자겸이 몰락하자 諫官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 앞의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종당시 청연각에서 경전의 강론에 참여했던 유신들 가운데에는 박승중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가 「海東秘錄」을 비롯한 서적의 편찬과 왕을 모시고 시강한 일 등 학문적 공로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權臣에게 아부하여 스스로 몰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高麗史」 列傳에서도 그를 姦臣으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으니 오늘날 후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高宗 때의 대학자 이규보는 그의 문집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보문각 대제를 謝恩하는 表文'에서

“書閣(보문각)은 淸職이라 세상에서 仙官이라 일컫는데 은총이 갑자기 내리매 靑雲이 평지에서 일어나고 영광이 지극하여 대낮에 하늘에 오를듯 합니다.⁶⁷⁾”

라고 쓰고 있다. 물론 국왕에 대한 의례적인 표문이겠지만 보문각의 관직이 당시 얼마나 尊貴하며 영광스런 자리인가를 대변해 주는 글이라 하겠다. 그는 결국 高宗 8년(1221)에 보문각 대제에 올랐고, 동왕 19년(1232)에는 학사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보문각의 직제는 忠肅王 원년(1313)에 大提學(정2품)과 提學(정3품) 및 直提學(정4품)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⁶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瀋王으로 있던 忠宣王의 명령으로 忠烈王 원년(1274)에 보문서로 격하시켰던 각명을 還元하면서 차제에 품계를 오히려 상향 조정한 직제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된 보문각의 직제는 직명과 품계에 있어서 당시 王命의 출납과 국사 편찬을 담당하던 藝文春秋館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많다.

67) 李奎報 著, 「東國李相國集」. 卷31, 寶文閣待制謝表. “云云, 職淸書閣, 世號仙官, 寵漏驟加, 靑雲生地, 光榮藉甚, 白日昇天. …”

68)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忠肅王元年, 瀋王鈞旨復置寶文閣, 大提學從二品, 提學正三品, 直提學正四品”

<표 3> 보문각직에 임명된 인물 : 忠肅王 이후

임명 또는 활동시기	직명	大提學	大學士	提學	學士	直提學	直學士	待制	直閣	應教
忠肅王 4年(1317) 7年(1320) 復7年(1338)	趙延壽				全柏軒 朴元桂					
恭愍王 4年(1355) 5年(1356) 6年(1357) 11年(1362) 22年(1373)		李復仁			李挺		鄭元敬		崔宰 安宗源	
禰王 3年(1377)						河崙				
朝鮮 太祖 2年(1393) 3年(1394)	閔霽				安景恭					
定宗 2年(1400)		閔霽								
太宗 9年(1409)						安純				
世宗 1年(1419) 13年(1431) 18年(1436)	安純			安純			許詔			

恭愍王 때에는 忠肅王시의 직제가 削職, 新設, 復置 등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게 변천한다. 먼저 동왕 5년(1356)에는 대제학은 대학사(중2품)로 직제학은 직학사로 각각 바뀌고 제학을 없애는 대신 정5품직 대제를 신설하였다.⁶⁹⁾ 또한 동왕 11년(1362)에는 대학사를 대제학으로 직학사는 직제학으로 환원하고 대제는 없었으며 정4품의 直閣을 신설하였다.⁷⁰⁾ 동왕 18년(1369)에는 제학을 학사로 바꾸고 직각은 없었으며 정5품의 應教를 새로 두었다가 동왕 21년(1372)에 와서는 11년의 직제로 복귀하였다.⁷¹⁾

조선조에 계승된 보문각의 직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표 3>의 보문각직에 임명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대략 충숙왕과 공민왕 시의 직제를

69)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恭愍王五年, 改大提學爲大學士, 減提學, 改直提學爲直學士, 置待制正五品”

70)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十一年, 復改大學士爲大提學, 復置提學, 改直學士爲直提學, 減待制, 置直閣正四品”

71) 『高麗史』. 卷 76, 志第 30 百官 1 寶文閣條. “十八年, 提學例改學士, 減直閣, 置應教正五品. 二十一年, 復用十一年官制”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문각의 직제가 世祖 6년(1460)에 완전히 혁파되었다고 實錄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 보문각직에 임명된 사례는 世宗 18년(1436)에 許詒가 보문각 直提學에 임명된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따라서 그 이후 보문각은 사실상 有名無實化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結 言

이상에서 고려시대의 도서관에 대하여 청연각과 보문각의 설립경위 및 보문각의 기능과 직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초기 복잡한 대외 관계에도 불구하고 麗·宋 양국의 교류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는 대개 高麗가 宋에 바치는 貢物과 宋帝가 하사하는 賜與品の 형태로 양국 조정 간에 일종의 公貿易을 성행케 하였다. 교역의 품목은 의복과 비단, 器物, 장식류, 말, 藥材, 書畫類를 비롯하여 書籍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고려로 유입되어온 많은 전적은 우리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국가 도서관 장서의 밑거름이 되었다. 문물제도에 있어서도 宋朝에서 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는데, 특히 고려의 국가 도서관은 그 閣號와 職制가 송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이 많다. 항상 儒術을 숭상하고 華風을 흠모했다는 睿宗은 송의 각호와 동일한 寶文閣과 天章閣을 설립하여 송제가 보낸 親制國書와 御筆, 御書를 봉안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송과의 교류를 통한 중국서적의 流入, 중국서의 開板 및 국내 저술서의 개판 등으로 많은 전적이 축적되었고, 肅宗·睿宗 두 君主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학문을 장려하고 문화를 興隆시키는 정책과 맞물려 국가도서관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 예종에 의해서 설립된 淸謙閣과 寶文閣은 이러한 과정으로 탄생된 대표적인 국가의 중심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청연각의 설립은 예종 11년(1116) 8월의 일로 儒術을 숭상하는 예종의 주도하에 명유들에게 유가의 경전을 강론하게 하고 때로는 학술토론과 강연을 수행하는

궁중내 핵심적인 학술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이를 위해 많은 장서를 축적한 도서관으로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청연각이 설치된 지 3개월 뒤인 예종 11년(1116) 11월에 다시 보문각이 설립된다. 청연각이 경전의 강론소와 궁중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기관의 설립을 명한 이유는 청연각이 왕의 處所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 학사들이 출입하고 숙직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고 필자의 견해로는 청연각에 가중된 업무의 分掌을 위해 별도의 殿閣을 설립했을 것으로 본다. 즉 경전 강론소로서의 기능과 전직 소장의 기능 중 전직 소장의 기능은 보문각으로 이관되고, 이때부터 청연각은 주로 경전 강론소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문각의 설립과 더불어 청연각의 職制가 보문각으로 移管되고 국가의 주요 전직들이 보문각에 移藏되어 예종 이후에는 보문각이 국가의 중심도서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忠烈王 16년(1290)에 元의 叛軍인 哈丹이 침략해 왔을 때 보문각의 전적을 江華島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또한 보문각은 장서의 소장과 관리라는 도서관으로서의 주된 임무 외에 典籍의 校勘이라는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神宗 원년(1197)에 元子를 侍講하는 書筵이 개설된 이래로 麗末에 이르기까지 과거 청연각이 맡았던 경전 강론의 임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元의 지배로 인하여 국력이 쇠퇴하고 국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麗末에 이르러 보문각은 국가의 運勢와 같이하면서 閣號의 格下와 合併 등의 시련을 겪게 된다. 忠烈王 원년(1274)에 원의 요구에 의해 중앙관직에 대한 합병과 관호가 개정될 때 寶文閣은 寶文署로 격하된 관호의 개칭이 이루어진다. 이후 동왕 24년(1298)에는 同文院과의 합병이 단행되었으며, 忠肅王 원년(1313)에는 瀋王(忠宣王)의 명령으로 다시금 寶文閣이라는 이름으로 관호가 復置된다. 이때에는 職制의 개편도 단행이 되었고 관직의 品階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아 이전 보문각의 기능과 권위를 회복하려는 시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朝에 이르러 고려의 기관명을 계승한 보문각이라는 명칭이 世祖 때까지 존속하고 있다. 定宗 2년(1400) 5월에 고려 延英殿의 後身인 集賢殿을 고쳐 寶文閣이라 했다는 기사가 조선시대에 보이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러나 世宗·世祖 년간에 와서 보문각은 직제의 革罷와 復置를 거듭하다가 결국 世祖 6년(1460)에 이르러 완전히 혁파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

보문각의 직제는 설립당시에 구 청연각의 직제인 학사(중3품) 1인, 직학사(중4품) 1인, 직각(중6품) 1인 및 교감 4인이 보문각으로 이관이 되고 여기에 정5품 관직인 待制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직제에 中樞內臣이 겸직한 提學, 同提學 및 管句, 同管句의 관직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明宗연간은 중2품의 大學士 1인이 보문각의 직제에 들어갔다. 이러한 보문각의 직제는 忠肅王 원년(1313)에 大提學(정2품)과 提學(정3품) 및 直提學(정4품)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편된 보문각의 직제는 직명과 품계에 있어서 당시 王命의 출납과 국사 편찬을 담당하던 藝文春秋館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많다. 恭愍王 때에는 忠肅王 시의 직제가 削職, 新設, 復置 등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게 변천하게 되는데, 東陽 5년(1356)에는 대제학은 대학사(중2품)로 직제학은 직학사로 각각 바뀌고 제학을 없애는 대신 정5품직 대제를 신설하였다. 東陽 11년(1362)에는 대학사를 대제학으로 직학사는 직제학으로 환원하고 대제는 없었으며 정4품의 直閣을 신설하였다. 東陽 18년(1369)에는 제학을 학사로 바꾸고 직각은 없었으며 정5품의 應敎를 새로 두었다가 東陽 21년(1372)에 와서는 11년의 직제로 복귀하였다. 조선조에 계승된 보문각의 직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직에 임명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대략 충숙왕과 공민왕 시의 직제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문각은 고려 睿宗 11년(1116) 11월에 설립되어 조선 世祖 6년(1460) 까지 고려시대 여타의 도서관보다 가장 오랫동안 存續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전적을 보존하고 관리한 국가 중앙도서관임을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는 典籍의 校勘과 經典의 講論 및 王世子와 국왕의 교육도 수행하였으니, 보문각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종합학술센터로 평가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鄭麟趾 等 奉命撰. 「高麗史」. 影印本. 서울: 延世大學校東方學研究所, 1955.
- 金宗瑞 等 奉命撰. 「高麗史節要」.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徐兢. 「高麗圖經」.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1963.
- 「宋史」. 影印本. 臺北: 新文豐出版公社, 民國64(1975).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4291(1958).
- 徐居正 等編. 「東文選」. 影印本. 서울: 慶熙出版社, 1972.
- 「國朝寶鑑」. 影印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 「宮闕志」. 影印本.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4289(1956).
- 「增補文獻備考」.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4290(1957).
-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東國文化社, 4294(1961).
-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 李炫熙. “高麗時代 圖書館 研究 1~14.” 『圖書館』. 1970~1972.
- 周藤吉之. “高麗前期의 寶文閣.” 『朝鮮學報』. v.90, 昭和54(1979).
- 金重權. “高麗時代 睿宗의 讀書討論 考察.”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209-240.
- 朴文烈. “高麗時代 書籍政策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大學院.
1992.

к с і